

# 보도자료

- 발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목 : 은국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
- 일시 : 2009년 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홍대 앞'사(Sha)' (6호선 상수역 근처 극동방송국 맞은편 건물 3층)
- 문의 :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mailto:peace@withoutwar.org)  
여옥 010-5183-0036 / 용석 016-854-0851

## “파병국가의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은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약 450여명 정도 됩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1만 3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2000년 이후에도 5천여명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를 자랑하고 있지만, 작년 말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 중 특히 일부인 여론조사를 핑계대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라서 수감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3. 오늘 2009년 2월 19일 입영영장을 받은 은국씨는 입대하는 대신 병역거부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은국씨는 2003년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다녀오면서 군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범죄행위에 동참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군대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합니다. 또 생명을 보살피는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군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선택의 대가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하지만 말입니다.
4. 은국씨가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은국씨의 병역거부 소견서

붙임3. 지지글1 - 은국씨 어머니

붙임4. 지지글2 - 후배 현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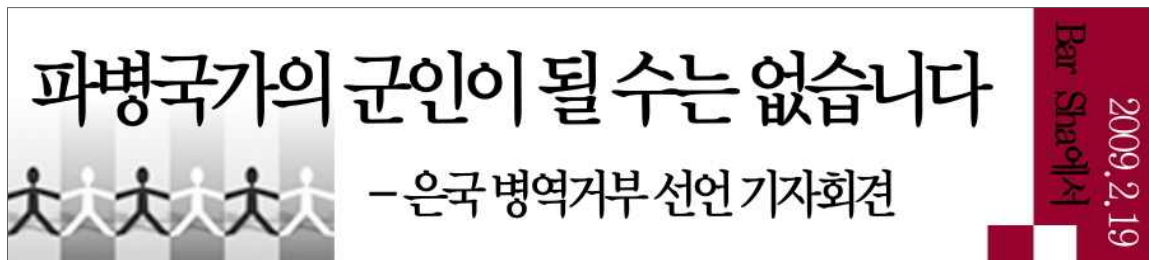
붙임5. 지지글3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최규진씨

붙임6. 보건의료인 지지성명서

붙임7. 병역거부 연대회의 성명서

## ☯ 은국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홍대 앞'샤(Sha)' - 극동방송국 정문 맞은편 book cafe 토끼의지혜 건물 3층  
6호선 상수역 1번 출구에서 홍대방향 도보 5분 / 초록버스 7011번 극동방송국 하차



<순서>

사회 : 용석(전쟁없는세상)

1. 대체복무제 관련 경과보고와 현재 상황  
: 최정민(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 지지발언
  - 현우(대학생활을 같이한 친구)
  - 오김숙이(전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 최규진(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
  - 윤혜숙(은국씨의 어머니)
3. 힘을 주는 노래공연
  - 루드의 상상력
4. 병역거부 선언  
: 은국

## 어쩌다 나는 감옥에 가는가

은국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국군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켜주 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썼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군인아저씨는 늙고 있고 씩씩한 우리의 수호자였다. 이러한 생각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왕 군인이 되려면 가장 강하다는 해병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열아홉 살 때 받은 군대 신체검사에서는 1급을 받고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나라에서 보증하는 튼튼한 1급 남자였다.

영똥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범생이었던 내가 대학교 때 선배들을 따라가서 본 집회는 큰 충격이었다.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다니! 그들은 경찰이 아닌가?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집회를 다녀와서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벌벌 떨었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듯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을 시작한 후로 공권력은 언제나 나와 반대편에 있었다. 그들은 법질서를 지킨다며 해고당한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몽둥이와 방패로 끝없이 진압했다. 법과 공권력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이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투경찰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병역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내 머리 속에는 “가장 억압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연대하라”는 말이 항상 빙빙 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책임질 수도 없는 거대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 말에 매료되었다. 2003년 3월, 그 말은 나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까지 가게 했다. 그 때 바그다드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반전 운동가들이 몰려들었는데 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침공이 시작되더라도 끝까지 이라크에 남아있겠다고 다짐했지만, 미국의 선전포고가 발표되고 난 후 나는 바그다드를 빠져나왔다. 침공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이라크에 머무르는 것보다 한국에 돌아와서 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 여론을 만드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끝까지 이라크에 남아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다.

그리고 침공이 시작되었다. 집들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마구 죽어갔다. 총에 맞아 죽고 폭탄에 터져 죽고 건물에 깔려 죽었다. 나는 TV를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도망쳐 나온 곳에서, 도망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이 학살을 멈출 수 없었고, 심지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날강도질에 후방 지원을 하다니.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였다. 그 때 나는 마음먹었다. 이런 전범국의 나라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조리를 강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

다고 다짐했다. 이라크 파병을 선택한 이 나라 정부는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같은 해 5월, 나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이라크 반전 운동을 계기로 국제 평화 운동에 눈이 떠지게 된 것이다. 한 달간 머무른 팔레스타인에서는 죽음은 항상 나와 가까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늘 곳곳에 이스라엘 저격수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검문소에서는 여권을 요구하며 총을 들이밀었다. 장전된 총에 조준되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오줌이 지리고 온 몸이 얼어붙어 숨쉬기가 어려운 공포였다. 한 밤 중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땅이 흔들렸고 탱크소리와 장갑차 소리, 총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홀로코스트 수용소였다. 수 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치에게 그들이 당한 그 방식 그대로 팔레스타인을 압살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와 가지게 된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나의 결론은 “모든 권력의 집중은 악이다.”라는 것이다. 예전의 나치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던지 간에 매우 위험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상대적 약자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나는 모든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무조건적인 비폭력주의자는 아니다. 폭력은 맥락적으로 판단되어야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는 필요하다. 군대의 원칙적인 존재 이유 역시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었지만, 예전의 베트남 파병, 그리고 지난 이라크 파병은 나라를 방어하는 본연의 임무를 떠난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국의 군사력 확대주의는 평화가 아니라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병역 거부가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나는 군사력 축소가 전쟁을 방지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과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나와 다른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나의 신념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지금의 법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동의할 수 없는 강제 징집과 감옥행 중에 한 가지만을 고르라는 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국가폭력이다.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과 이 사회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일 것이다. 또한 나는 생명을 보살피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사력 확대를 반대하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지지글1>

## 어쩌다 내 아들은 감옥에 가는가

윤혜숙 (은국의 어머니)

내 아들은 나쁜 놈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 대한민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놈이지요.

나도 이런 아들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남 다 가는 군대를, 그것도 4주 군사훈련만 하고 지하철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라는 것도 마다했을 때, 정말 미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어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진정 가족을 생각하는 자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나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알지 못했기에, 내가 편하고 싶었기에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미인 나는 그저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저녁이면 따뜻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신념? 정의? 잘못된 체제? 다 개나 물어가라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래, 다 좋다. 너만 안 하면 누가 뭐라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지 않은가?

다만 내 아들은 조용히 살아 주길 바랬습니다.

좋은 한의사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단체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보기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내가 모르는 곳,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지구, 이라크에서 또한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프게 겪고 왔고, 또 그 일이 그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비폭력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총과 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면, 살상도 전쟁도 없으리라고 믿는 아이의 신념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모이고 합쳐지다면 진정 전쟁없는 세상이 오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모두 총을 거두고 무기를 없앤다면, 지금처럼 끔찍한 학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신념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나는 그 아이의 어미이기에 힘을 더 해주고 격려해주며 이 힘든 시기를 겪어 나갈 것입니다.

가족이 외면한다면 누가 이 아이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지난 몇 달 간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애를 어떻게 길러서 그러냐? 애미가 오냐 오냐 하니까 자식이 제 멋대로다.

그런 나쁜 놈은 호적을 파 가라고 그래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괴롭히는 내 자식이 미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든 길일지라도 본인이 꼭 가야했다면,  
가야만 할 길이 있기에 나는 내 아들을 보냅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일은 내 아들로써 끝이 나길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반드시 모병제가 될 것이며, 병역거부로 감옥에도 갔다는 전설이 생길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지글2>

## 은국이형! 힘내!

— 형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현우

은국이형과 알게 된지 햇수로 벌써 7년째다. 형과는 7년전 이맘때 대학 새내기때 새터 가는 길에 처음 만났다.

내가 처음 만난 형은 바지대신 치마를 입고, 머리는 파마를 하고 있어서 내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 남자가 파마에 치마라니... 이렇게 대학이라는 건가? 했다. 형은 아니나 다를까 새터 가는 버스안에서 새내기들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에 새내기도 아닌데 나왔다. 새내기를 위해 준비한 노래가 있다면서 수줍게 말을 시작하더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열창했는데 처음부터 꽤 고음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얼굴이 시뻘게졌다.

형은 인기가 참 많다. 주위에 여자들도 많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연애를 가장 맛깔나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다. 뭐랄까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달했다고 할까? 스스럼없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애교 부리고, 대다수 한국남자들이 못하는 그런 걸 참 좋아하고 잘 한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달려가서 포옹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서 많이 부러울 정도다.(^^)

그런 형이 얼마전 병역거부를 고민한다고 했다. 나는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보다 감옥 생각이 먼저 났다. 1년 6개월의 감옥생활. 현역병 입대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이나 감옥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감옥은 형 좋아하는 연애도 못하고, 형 좋아하는 기타치며 노래부르는 것도 할 수 없는 곳인데. 환경운동의 일환인지 자전거 매니아가 되어 자동차 대신 자전거만 타고 서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형이 그 좁은 공간에 왜 가려고 하는 걸까. 뭐하나 자유로울 게 없는 감옥생활.

정말 감옥 갈꺼야?

물었더니 간다고 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말을 시원하게 잘 못한다. 군대를 안 간다는 건 대다수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건데, 설득력있게 얘기라도 잘해야 할텐데. 이래서 정말 그냥 힘들게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도 형 생각이 안 바뀐다.

형은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직전 바그다드에 인간방패로 한달여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형 마음 속에 좀 더 깊게 남아있는 것 같다.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라는 게 정의 때문도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때문

도 아니고, 고작 패권국들의 이익,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오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는 각 국 정부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형은 절망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형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왜 꼭 감옥이 되어야 할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지만, 어쩌면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오늘날의 절망적인 현실에 책임있게 맞서고, 이유없는 전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직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생계로 하는 한의사라는 직업에도 몇몇한 길일 것이다.

앞으로 힘든 시간들 곳곳이 잘 이겨냈으면 한다. 나도 함께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함께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형에게 힘이 되라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한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2~33>

<지지글3>

## 은국씨를 지지하며

최규진(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

저는 은국씨를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그가 한의사라는 것과 그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봐왔고 그의 글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세부적인 그의 세상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아니 보건의료인으로서 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6년 전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외과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러곤 얼마 되지않아 이라크전쟁이 터졌고 신문에는 이런 글이 머릿기사로 실렸습니다. “외과의사같은 정교한 폭격”... 분명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인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어떤 명분도 없는 패권을 위한 전쟁에 내가 고귀하게 선택한 직업이 비유의 대상으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멸스러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폭탄으로 대량 살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반전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뺏지를 팔고 영화제를 열고 온갖 짓을 다해봤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흘리는 피보다 그들에게 가까운 것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된 차가운 피였습니다. 그 때 은국씨를 보게되었습니다. ‘아, 보건의료인중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 혼자 외치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었죠.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외쳤고, 그 외침에 응답해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몇 년이 흐른 오늘 끝나지 않은 전쟁을 반대하며 그는 다시 서있고, 그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여기가 오가고 있더군요. 은국씨가 표현한 것처럼 우린 또 다시 전범국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나보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속에 세상에 대해 소리칠 힘도 남지 않은 듯 싶습니다. 경제도 안좋은데 그렇게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들 누구의 주머니에 채워질 것인지, 설령 그 콩고물이 떨어진 다 한들 사람을 죽이고 버는 돈에 우리가 꼬덕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촌형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미국시민권자로 참전했던 형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왜 죽어야하죠? 왜 이 말도 안되는 전쟁에 가난한 자들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대신 죽어야 합니까? 어제는 제 방에 놀러 온 사촌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지도 모른대... 형이 죽은 곳이 거기인 건 알고있니?” 제 사촌동생은 말하더군요.

“음. 파병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전쟁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어제 밤 내내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전쟁이 어쩔 수 없죠?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무관심과 포기. 이 세상의 전쟁광들은, 이 세상의 지배계급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볼 수 도 없고, 전쟁을 통해 죽게 되는 그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도 안되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 전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없애는 가장 바르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 의사의 길을 벗어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 전쟁을 종결시킨 것은 그리고 전쟁을 예방한 것은 한 우두머리의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더 이상 전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더더욱 생명의 가치를 평생 고민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이것은 당연지정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못의 파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연못에 울림이 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빗방울 하나, 하나가 필요하겠죠. 기꺼이 떨어져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의 일부가 되어 연못으로 스며들 작은 빗방울. 그런 빗방울 하나인 은국씨를 지지합니다.

<지지성명서>

**평화를 향한 마음을 감옥에 가두지 마라!**

**한국군 재파병 정책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2009년 2월 19일 한 보건의료인 은국씨가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에 반대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이 젊은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인간방패로 맞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바그다드에 있었다.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악랄한 전쟁범죄의 가해자이며 파병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정부를 대신해 이라크 민중들에게 사과를 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신념에 따른 선언이다.

은국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며 명분없는 전쟁에 희생되는 무고한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에 헌신해 왔다. 특히 2003년 초 ‘이라크 평화진료단’을 꾸려 직접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료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라크 민중들에게 한국은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는 것이기에 전쟁범죄의 동조자가 될 수 없다며 파병 반대의 목소리에 함께했다.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지도 6년이 흘렀고,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춰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아프간스탄 점령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재파병 정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시기 은국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며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재파병 정책에 반대한다.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야만적인 기구이다. 또한 위계와 계급으로 점철된 군사문화는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을 양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 운운하고 있지만 한국은 징병제 국가 중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권고도 무시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체복무제의 백지화를 발표했다. 어이없는 국방부의 결정에 은국씨와 같이 군대를 거부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징집 거부로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야하며 군대를 거부하고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서글픈 현실을 중단시켜야 한다.

전쟁은 평화가 아닌 희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군대는 평화를 유지시키는 곳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다. 전쟁과 군대 그리고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잔인한 전쟁을 통해 배웠다.

우리는 비단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닌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소중한 생명이 자본과 권력의 잔인함 앞에 희생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용산 철거촌 망루에 올라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낙인찍으며 결국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폭력은 국가권력이 국민들을 향해 벌이는 전쟁과 다름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은국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한국군 파병정 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방부는 종교를 포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2009년 2월 19일

은국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

—단체—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중앙위원회

—개인—

김진영, 최인순, 이상호, 송미옥, 홍춘택, 연미, 오민우, 황해평, 정동만, 신형근, 수미, 김진영, 강아라, 고경심, 김건우, 김나연, 김미경, 김미정, 김영순, 김정범, 김종명, 김철환, 노태맹, 문정주, 박일성, 박태훈, 백남순, 손미아, 송홍석, 신경목, 신인식, 이경주, 이상윤, 이종우, 이현희, 정백근, 정영진, 추호식, 최지영, 우석균, 김형성, 류재인, 김의동, 전양호, 조병준, 박대희, 정택수, 윤은정, 송일수, 김일권, 김이중, 장재혁, 강경남, 박용, 이종우, 윤이서운, 김휘수, 이은경, 유성기, 손정수, 윤진원, 박재만, 채진호, 임재현, 이상재, 이현준, 최규진, 김지선, 백용욱, 이정연, 오정원, 김민영, 김종명, 백용욱, 김규연, 이승홍, 최정식, 김동길, 최용준, 채민석, 이세영, 이지희, 정신석, 이보령, 권민정, 윤정원, 김승섭, 이혜승

##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걱정했던 대로 젊은이들의 감옥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24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진석용연구팀의 방대한 보고서 중 극히 일부인 부정적 여론조사부분만 브리핑했다. 그러면서도 2009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비겁함을 연출하였다. 현재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미 국내외적으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해 새삼스레 재정립한다고 하고 있다. 명칭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이제와서 명칭얘기를 꺼낸 것은 책임방기에 대한 면피용 변죽 울리기밖에 안된다.

지난 1월 6일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정민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2월 19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순간에도 평화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은 감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월 19일 자신의 입영날짜에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은국씨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을 막아보고자 맨몸으로 이라크에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뛰어들었던 젊은이다. 부당한 전쟁을 막는 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던 청년에게 자신의 나라가 침략전쟁에 파병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걸었던 이라크의 거리가 파괴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군이 그 추악한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의 편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파병국가의 국민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려거든, 정부는 먼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사죄를 해라”는 그의 외침이 이미 파병의 기억을 망각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쓴 울림을 전한다.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었다던 젊은이가, 생명을 보살피는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사람들의 병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사회의 병까지 치료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가야할 곳이 정말 감옥밖에 없는 것인지. 혹 그의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병역거부에 백퍼센트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국방부는 답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책임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 2. 1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